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타고 돌풍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누적 판매량 100만개 돌파... 농산물 판로 확대 발판 마련

익산 고구마가 세계적 외식기업과 손을 잡고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시는 한국맥도날드와 협업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이 출시 9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은 지난 10일 한국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캠페인 일환으로 출시됐다. 이후 9일 만에 100만 개를 판매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 사상 최단기간 100만 개 판매 기록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한국의 맛’은 한국맥도날드가 ‘고품질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해 고객에게는 신선하고 맛있는 메뉴를 지역 농가에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매년 기획하고 있다.

올해 익산 프로젝트를 통해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 사상 최대 규모인 고구마 200톤을 수매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 역시 고구마 수급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구마 농가를 설득하고 독려하며 원활한 원료 공급을 뒷받침했다.

이번 협업은 지역 농산물이 대형 외식 브랜드의 주재료로 사용된 대표 사례로, 익산 고구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익산은 고구마 종순 유통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국 4대 고구마 주



익산시는 한국맥도날드와 협업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이 출시 9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지다. 미륵산 일대 황토밭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란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호평받고 있다.

버거의 흥행은 지역 경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시는 출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SNS 등 온라인에서도 ‘익산 고구마 정말 맛있는데 자랑스럽다’, ‘지역 농산물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열기를 계기로 고구마 공급 물량과 유통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장터 등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재출시 가능성 타진을 위해 한국맥도날드 측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6~7일에는 익산 고구마 축제’를 열어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도 선보일 방침이다.

권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익산 고구마가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익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협업 모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는 달콤한 익산 고구마에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를 더한 크로켓이 핵심이다. 여기에 매콤한 할라피뇨 마요소스를 더해 조화로운 맛의 균형을 잡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철 농업 분야 현장 중심 대응 만전

익산시가 여름철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권혁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고온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배수시설 점검부터 현장 안전관리까지 구석구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최근 배수펌프장, 저수지 등 수리시설과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큰 침수 피해를 겪은 망성·용안·용동면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는 농배수로 주변의 영농폐기물 83톤을 사전에 수거해, 6~7월 두 차례의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 사고와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한낮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익산=이재춘 기자



취 등)과 농작물 관리 요령(차광막 설치, 적적관수 운영 등)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문자·마음방송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차광시설·환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도 지원하며 현장 농업인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됐다. 시는 농촌 인력중개센터 6곳을 통해 매일 근로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에 문자(SMS)를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립식품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립식품박물관의 밑그림이 익산에 그려진다.

익산시는 22일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박물관 건립의 방향성과 실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법·정책적 타당성 검토, 콘텐츠 구성 등 기본구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조사된 내용은 향후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핵심 기반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 군산-경북 김천, 17년째 농특산물 교류·판매 활발

24일 군산시청 광장서 현장 판매...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 27일까지 판매 기간 연장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경북 김천시와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24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1998년부터 자매결연도시로 양 지역의 상호 우호 증진을 함께해온 군산-김천은 올해까지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1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주문을 진행해 포도 650상자, 자두 840상자, 복숭아 1,510상자 등 총 3,000상자, 4,600만 원 상당 주문을 받

았으며, 사전 접수된 물량은 행사 당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배부한다.

아울러 올해는 배낚호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방문단 60여 명이 방문해 교류하는 한편 직접 현장 판매를 진행해 사전 주문을 하지 못한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김천시장의 현장 판매 참여는 2년 만의 일로 그동안은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 현장 판매가 끝난 뒤에도 군산시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25일

부터 27일까지 연장 판매해 판매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삼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자매도시 교류·판매 행사를 지속 운영하여 시민에게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김천시와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 우호를 다지고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군산시가 김천시를 방문해 군산쌀·환할살보리·박데·홍어 등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김천시민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군산대, 지역 잡지 부흥 이끈다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지난 18일 인문대학 1층 교양 강의실에서 ‘2019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단계 3년차 학술대회 ‘한국 지역 잡지의 현황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포·전남, 대전·충청, 강원, 경기·인천권의 지역 잡지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목포·전남권 지역 잡지’는 이동순 교수(조선대), ‘충청권 지역 잡지’는 김현정 교수(세명대), ‘강원권 지역 잡지’는 남기택 교수(강원대), ‘경기·인천권 지역 잡지’에 대해서는 이희환 교수(인천대)가 발제



를 맡아 각 지역 잡지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지역에서 발행된 잡지들은 지역 문단의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 작가들의 발표의 장이 되면서 지역 문화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지역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 지역기업·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22일 건설기계 및 농기계 분야 기술 협력과 R&D 연계 강화 위해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군산강소특구)과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TI)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역 특화 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산업 중 건설기계·농기계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구 내 기업들의 기술수요를 반영고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R&D 연계, 시험인증 및 시험평가 장비의 활용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산강소특구 내 기업 및 관내 기업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KOCETI 본원과 기반기술연구센터, 시험평가인증센터를 순회하면서 KOCETI의 주요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를 견학하고, 보유 기술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2025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 개최

군산시가 오는 28일 서해안 낙조 명소인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2025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군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타악 연주(퍼포먼스)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무대 △여름밤의 열기와 흥이 폭발하는 디제잉파티 △감성과 완이 있는 노을당대회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불꽃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기획 행사인 ‘노을당대회’가 올해도 다시 열려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축제 전후인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환경 보호와 재미가 함께하는 ‘쓰담쓰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